

아주 얇은 것, 탄력성이 풍부한 것, 구멍이 크게 뚫려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 등 천차만별이며 사람에 따라 각기 달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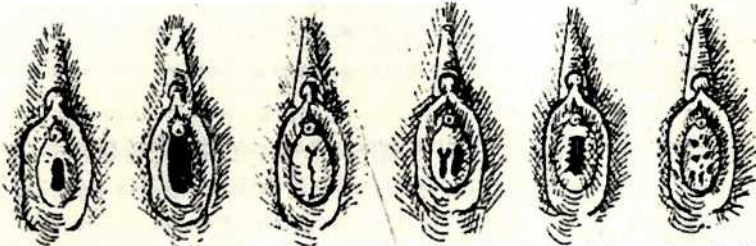


그림 출처 : 박금자(1994) 「귀가 예쁜 여자: 박금자 여성클리닉」 도서출판 민

자, 질주름의 실체를 확인했으니, 이제 질주름을 둘러싼 소문의 실체도 확인해 봐야겠죠?

질주름이 터질까봐 무섭다는 말은, 질주름이 터지고 나면 어떠한 나쁜 결과가 이어지리라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질주름은 아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근육이고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의학적 설명이 따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즉, 파열되었다고 해서 건강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에 따라 모양이나 두께, 지름, 단단한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파열되는 경우도 다 다릅니다. 단지 탐폰만 사용했는데도 파열될 수 있지만 분만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질주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성관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파열될 수도 있고 얇은 것은 파열될 때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출혈이 없는 경우도 있구요. 다시 말해, 질주름이 꼭 성관계로만(처음이든 아니든) 파열되는 것도 아니고, 파열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출혈을 하는 것도 아니니 질주름의 파열 여부와 성관계시 출혈 여부가 곧 '순결' 여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순결이네, 아니네를 따지고, 여성에게 순결을 강요하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사실 잘못된 것이구요.

또한 성관계시의 출혈은 질주름과 상관없이 성관계 중 질의 내벽이 긁혀서 생긴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하는 때, 원하는 상대와 서로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하게 관계를 갖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거나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나량림(1996) 「올바른 성생활을 위한 105가지 의문점」 문학과 현실사

Q: 성관계 할 때 쓰는 다양한 기구들은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죠?

A: 종종 '성인용품' 이라고 쓰여진 건물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곳이 '성인용품' (다른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을 파는 상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게 꺼려지신다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쇼핑몰에서는 배달하는 택배 직원도 자기가 배달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이중포장을 한다고 하고요. 걸면의 회사이름도 성인용품을 알 수 없는 이름으로 표시된다고 하네요.

성인용품이 특별히 몸에 해롭지는 않다고 해요. 관리를 잘 하고 성관계시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며 배려있는 성관계를 맺으신다면, 건강에 있어 크게 우려할만한 일은 없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딜도를 찬물로 씻어야 하나,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야 하나 궁금해 하시는데요. 딜도의 경우, 대부분 실리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녹아버릴 우려가 있어요. 성관계 후에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미지근하거나 차가운)에 씻고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말리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된다고 해요. 자동딜도나 바이브레이터는 물에 담그면 고장 날 수 있으니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 콘돔을 딜도 위에 덧씌워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안전하겠지요.

젤이나 윤활유는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을 찾아 쓰는데 몸에 해롭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무리하게 자극을 주었을 경우에는 질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냉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A: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듯이 정상적으로 분비물이 많은 여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만일 질염이라면 분비물의 색깔이 진하고 노란색으로 양이 많으며 가렵고 냄새가 납니다.(헛, 그렇다면 '혹시 내가 질염?' 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2번 문항을 클릭!)

손발이 차가운 사람에게서 냉대하(냉)나 월경통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 아세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냉대하(냉)는 한마디로 몸이 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죠.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음식(생강, 대추, 꿀, 국화 등)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참고문헌

이유명호(2004)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웅진씽크빅

Q: 자꾸만 성기 주변에서 냄새가 나요. 어떻게 하면 그 냄새를 없앨 수 있죠?

A: 손가락으로 성기 그림을 따라가 보세요! 보이시죠? 짙은 음순에서 자궁 경부까지 뻗어 있는 회랑입니다. 점막과 근육과 섬유조직으로 붉은 벨벳 옷을 입은 아늑한 동굴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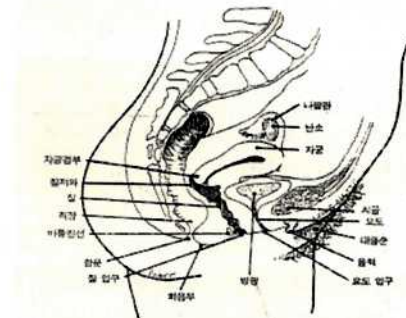


그림 출처: 나랑림(1996) 「올바른 성생활을 위한 105가지 의문점」 문학과 현실사

질에는 난관, 내막액, 질의 분비샘에서 나오는 점액과 유산균 및 대사산물, 떨어져 나온 세포들이 혼합되어 늘 흐르고 있습니다. 질액은 알부민, 백혈구 약간, 질과 자궁경부를 매끄럽게 윤나게 하는 뮤신으로 이루어진 깨끗한 액체예요. 이런 질 분비액의 양과 성질은 배란기에 늘어났다가 생리가 끝나면 줄어들기를 반복하구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질은 병적이고 질척한 분비물로 가득 찬 더러운 곳이라는 관념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한 질은 입 속보다 훨씬 깨끗하며 안정적인 생태계 연못과도 같아요. 유익한 유산균(락토바실러스)이 나쁜 세균을 몰아내서 질의 생태계를 안정시키고 유해한 미생물을 막는 살균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질액은 요구르트처럼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냄새와 맛은 약간 시큼하고 수소이온농도(pH) 4.5 이하로 적포도주와 비슷한 산성입니다. 블랙 커피보다는 좀 시고 레몬보다는 덜 시죠.^^ 왜 그런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에서 분비되는 유산균은 살균제 역할을 하기 위해 산도를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산도가 보통 식초의 세배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약간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랍니다.

간혹 여성의 성기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이들이 여성의 성기에서 나는 냄새가 성병 때문이네, 불결한 관리 때문이네, 하며 뒷물을 자주 하라는 무지하고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만,

질 속은 안정적인 생태계이다 보니 함부로 세척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깨끗해지려고 애쓰다가 유익한 세균을 죽여서 더 엉망으로 망치니 질 세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번 정도 미지근한 물로 외음부만 씻는 것이 청결을 유지하고 성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아요.

비교하자면, 남성의 음경은 소변과 정액이 한 통로를 쓰고 있어도 더럽고 불결하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요. 질은 요도와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요구르트처럼 이미 깨끗한데도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 게 누굴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참고문헌

이유명호(2004)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웅진씽크빅

Q: 오르가즘이 뭐죠?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나요?

A: 오르가즘이란 몸이 느끼는 절묘한 순간을 말하는데, 이는 스스로 의식적인 조절을 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의 작용으로 비롯된대요. 통상적으로는 성관계 중에 느끼는 극도의 흥분상태를 가리키고요.

손만 잡아도, 상상만 해도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인과의 섹스로 오르가즘을 느꼈든, 다양한 방식의 자위를 통해 느꼈든 오르가즘은 오르가즘이죠.

그리고 오르가즘은 어느 부위에서 유래 하는가 라는 의견이 분분한대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딱히 성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르가즘을 갖게 하는 자극의 종류나 부위는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예요. 그러니 흔히 말하여지는 것들을 갖대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지요.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요.

* 참고문헌

베티 도슨,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Sex for One, 1992)』 (곽라분이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1)

조엘D.블록, 『부부가 꼭 알아야 할 88가지 성 이야기』 (하태준 역, 가야 미디어, 1998)

Q: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런데 애인과 섹스를 할 때 삽입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죠. 남들은 좋다고 하던데 저는 아프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A: 삽입 섹스가 즐겁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우선 그것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어떤 방식의 섹스를 선호하는가 혹은 좋아하지 않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그에 따르는 이유도 다 다르고 말이지요. 물론 어떤 방식을 좋아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어떤 것을 싫어하는가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섹스 방식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도 내지는 기피도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지요. 절대로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삽입 섹스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삽입 섹스가 전혀 좋지 않다는 것을 애인에게 털어놓아 보셨나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애인에게 죄책감 같은 것을 가질 필요 없어요. 싫은 느낌, 원치 않는 느낌, 그런 느낌들에 대해 애인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두 분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탐색해 나가볼 수 있다면 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건네 보시는 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삽입만이 섹스의 전부인 것도 아니랍니다. 그런 방식의 자극이 아니더라도 클리토리스를 비롯한 몸 곳곳의性感대를 자극하는 것을 통해 충분히 쾌감을 느낄 수 있지요. 파트너 간에 서로의 다양한性感대를 찾아보고 서로 어떤 자극이 더 좋은 느낌을 주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이제까지보다 더 만족스러운 섹스를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또, 손가락이나 dildo 같은 기구를 삽입하더라도 아프지 않은 방식으로 질 안쪽의性感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몸 전체가 충분히 자극을 받은 상태에서 아프지 않도록 부드럽게 질 내부를 자극해 본다면 질 안쪽에서도性感을 느끼는 곳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예요. 물론, 삽입 자체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노력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아무쪼록 건강하고 즐거운 섹스를 파트너와 나누실 수 있게 되길 바랄게요.

Q: 애인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그리 즐겁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거든요. 이게 불감증인가요? 어떻게 하면 불감증을 없앨 수 있나요?

A: 성관계가 즐겁지 않아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이시군요. 애인을 사랑하고 있는데도 애인과의 성관계가 즐겁지 않다면 '내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또 많이 속상하시기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하지만 섹스가 전혀 즐겁지 않다고 해도 그런 본인이 이상한 사람인 것은 전혀 아니랍니다. 섹스가 즐겁지 않은 데는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별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섹스라는 것 자체를 그닥 즐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의 느낌에 솔직하게 반응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점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섹스가 즐거우면 즐기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즐겁지 않다면 일단 섹스를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성관계라 해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게 돼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애인과 섹스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쾌감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 보도록 할까요. '불감증'이라는 이름의 의학적 증상은 사실 그 의미가 대단히 협소하답니다. 간단히 말해 '성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섹스를 할 때 쾌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이 바로 '불감증'이라는 의학적 증상의 의미이지요. 그래서, 섹스가 즐

겁지 않은 경우, 왜 굳이 섹스 같은 것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 등을 다룰 때 이 '불감증'이라는 낱말에 간혀버리면 불충분한 이야기에만 머무를 수 있어요. 성욕 자체가 없는 것도 분명 섹스를 즐겁지 않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 터이니까요.

성관계가 즐겁지 않다면, 성욕 자체가 없는 건지, 욕구는 충분히 있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건지, 욕구도 있고 흥분도 곧잘 하지만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등과 같은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경우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런 경우들이 '그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네요. 이 말은, 그런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강박적으로까지 노력할 필요는 결코 없다는 이야기와도 같아요. 다만, 즐겁게 섹스하고 싶고, 그런 만족스러운 섹스를 통해 쾌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다면 그 때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터이지요.

그러면, 성관계를 즐기지 못하는 원인일 수 있는 몇가지 사실들에 대해 살펴볼까요. 성욕 자체가 없건, 자극에도 특별한 반응이 없건, 흥분을 하긴 하지만 오르가즘에는 이르지 못하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본인이 성폭력과 같이 성적으로 불쾌하고 폭력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경우, 여성이 성적 욕구를 갖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지내온 경우, 애인이 본인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멋대로 성관계를 이끌어왔을 경우 등이 바로 성관계를 즐거운 것으로 느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일 확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우리들 레즈비언의 경우,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내면화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 때문에도 섹스시 긴장할 수 있는 확률이 다분히 높은 것이고요.

이런 경우 성관계를 할 때 자신의 신체에 오는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섹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의 수치심에 시달릴 수 있으며, 심지어 내 몸을 훼손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겠지요. 그런 느낌들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진행중인 성관계에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내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므로 성관계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임할 수 있으려면, 섹스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나 자기 몸에 닿아오는 터치들에 이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곧바로 상기하며 다시금 아파져 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조금씩 완화시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본인이 오롯이 혼자 하기 어려운 것이라 애인을 비롯한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해요.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페이스로 천천히 해 나가세요.

우선 애인에게 자기 자신의 느낌을 차분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전달해 보세요. 성관계 시 애인의 거칠기만 한 행동으로 불편하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하시고요. 내 몸의 느낌을 보다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애인에게 건네고 나면 두 분이 함께 이후에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의논해 나갈 수 있을 것이예요.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애인과의 관계 자체가 위태로워 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애인이라면 더욱 상대방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펴줘야 하는 법이니까요. 애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선행돼야만 연인 사이도 더욱 가깝고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못나서 괜히 애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나 자신을 스스로 보살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해요. 몸이 느낄 수 있는 성감은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에요. 성관계에 대한 터부스러움을 깨어나는 과정에서 점차로, 자기 몸이 어떤 때 흥분되고 기쁜지에 대해서 찾아나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지는게 더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좋은지에 대해서부터 내 몸이 어떤 자극에 민감한지에 이르기까지 만족스러운 섹스를 위해 생각해 볼거리들은 참으로 많답니다.

관련된 자료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들을 찾아 보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자신의 몸과 자신의 지난 경험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담소에서도 도울게요.

FAQ

IV. 동성애에 대한 편견들

**Q: 동성애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A: 동성애자는 이성애 성향이 아닌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것 외에는, 특정한 기질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애자들의 모습이나 성격이 각기 다르듯, 동성애자들도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곳에서 살거나, 특정한 색을 좋아하거나, 특정한 스타일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성애자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심지어 가족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는 가설이 사회엔 많이 떠다니고 있지요. 그

렇지만 대부분 편견에 근거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의 결과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뭐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이성애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이에요. 남자는 파란색이고, 여자는 분홍색인가요? 참으로 얼토당토않은 질문이지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황당하다는 생각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성애자들의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억지겠죠.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이 비슷한 외모에,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취향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동성애자에 대해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먼저 ‘동성애자’ 라는 말을 ‘이성애자’ 라는 말로 바꿔서 다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리석고 황당한 질문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만큼 동성애자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Q: 레즈비언은 다 남자 같은가요?

A: 레즈비언이 남자 같은 사람이라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게 되는데요. 먼저, ‘남자 같다’ 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의 남성들을 둘러보세요. 생김새도, 성격도, 취향도, 잘하거나 못하는 것들도 각기 다르죠. 사회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 데 묶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신기하게도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무 자르듯 딱 나누고 있지요? 그것은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강요를 받아들여, 자기 자신을 여자답게, 혹은 남자답게 보이도록 은연중에 노력하게 되죠. 어릴 적부터 '사내 애가 계집애처럼~' 또는 '여자가 왜 저럴까' 식의 말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여성성과 남성성의 잣대를 들이대어 평가하고는 하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요.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분해서 여성은 이래야 하고 남성은 저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다양한 개성을 무시하거나 틀에 박힌 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좀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랍니다.

아마도 레즈비언은 다 남자 같으냐 라는 질문에 담긴 '남자 같다' 는 말의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통상 쓰이고 있는 남성다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요.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대범하고, 도전의식이 강하고, 성격이 거칠고, 공격적이고 등의 의미 말이지요. 또한 머리스타일은 짧고, 화장을 안 하며, 치마를 입지 않아야 할 테고 말이에요.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다 "남성적" 인 것은 아니랍니다. 어떤 레즈비언들은 사회에서 제시한 남성성의 기준에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레즈비언들은 남성성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이성애자 여성이라고 해서 다 "여성적" 인 것도 아니지요? 이성애자 여성들 중에도 바지를 즐겨 입고, 대범하거나 혹은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많잖아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듯, 레즈비언들도 각기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레즈비언이 남자 같다' 는 말에도 편견이 들어있지만, '남자 같다' 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편견까지 생각해볼길 바래요. 여자답고, 남자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자답지 못한 여자' '남자답지 못한 남자' 로 낙인 찍히면서 질책을 받고, 자신만의 개성을 존중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Q: 같은 여자로서의 동질감, 남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닐까요?

A: 동질감만으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나,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다 라고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동질감도 사랑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는 다른 이질감 때문에 상대에게 끌린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특별한 호감, 묘한 이끌림이라는 것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매혹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에 대해 떠올리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느낌 혹은 강렬함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단순히 동질감 혹은 부담감 여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요.

만일 여자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같은 여자로서의 동질감 때문이거나 남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면, 한국의 대부분 여자들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에선 어릴 적부터 남자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으니깐 말이죠.

레즈비언들 중에는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하기에 편하다면서 잘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남자들에게서 부담감보다 친근함을 느끼는 여자들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연인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자체가, 남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자를 사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답이 될 것 같군요.

남자들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자에 대해 호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보장도 없고,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자들에 대해 부담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증거도 없답니다. 그러므로 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하는 질문은 마땅한 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건 레즈비언이든, 이성애자든, 개인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Q: 어릴 때 남성으로부터 안 좋은 경험을 당한 여성이 남성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레즈비언이 되는 건 아닌가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성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경험을 당한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A: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선 남성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여성이 쉽게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때론 폭력의 피해자가 되곤 하지요. 남성으로부터 폭력, 특히 성적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 남성에 대한 혐오감이나 사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차별적인 세상에 저항하려 하는 여성들도 있지요.

그러나, 남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모두 레즈비언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 정체성을 결정하거나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수반하고 있다고 봐요. 따라서 성폭력 피해의 경험이 레즈비언 정체성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이성애자 여성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또한 레즈비언들 중에 남성에 대해 혐오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즉, 피해경험이 레즈비언 정체성 형성과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가 여성으로 하여금 레즈비언이 되도록 만들었다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이플립 그 자체가 여성으로 하여금 레즈비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이해가 되려나요?

우리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존재합니다. 성 정체성 자체는 물론, 교제관계 등을 쉽게 드러내며 살 수 없고, 집안에서나 직장이나 사회 전반에서 이성과의 결혼압박에 시달리는 등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억압은 심각합니다.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과정 속에서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은 레즈비언이라면, 아무리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남성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성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남성에게 느끼기는 쉽지 않겠죠. 레즈비언 정체성은 여자가 좋은 남성을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만에 하나, 남성애 대한 혐오감 때문에 자신이 레즈비언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여성이 굳이 이성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는 일이에요.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그 자체가 불행한 일도 아니랍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남성애 대한 혐오감도 그것이 남성폭력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그러한 감정 자체를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후유증이니깐요. 다만 분노와 피해의식을 속으로 삭히고 물어두려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인과 사회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Q: 레즈비언은 절대 남자랑 사랑할 수 없나요?

A: 여성에게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이플립을 느끼는 여성이, 자신이 그러한 감정과 욕구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 속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해 나가며 살아가고자 할 경우, 이 여성은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취급하며, 동시에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상당히 제한하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만연해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여성이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되기까지 즉, 레즈비언 정체성을 갖게 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본인이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라는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규정한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남자를 사랑하게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자신이 이성애자인줄 알고 살았던 여성이 중년의 나이에 동성인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듯이, 반대로 레즈비언에게 그런 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레즈비언은 절대 남자랑 사랑할 수 없나?' '게이는 절대 여자랑 사랑할 수 없나?'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머리 속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동성애자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흔히 묻는 질문 중 하나예요.

만약 당신이 이성애자 남성이라면 '레즈비언은 절대 남자랑 사랑할 수 없나?' 라고 묻기 이전에, 누군가 이성애자인 당신에게 '당신은 절대 남자랑 사랑할 수 없나?' 라고 묻는다면 무어라고 대답을 할지, 어떤 느낌이 들지 먼저 생각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Q: 여중, 여고 같은 데에 레즈비언들이
 많다면서요? 그건 왜죠?

A: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여학교라고 해서 레즈비언들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학교에 이성애자 학생들도 많고, 남녀공학에도 레즈비언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중, 여고에 레즈비언들이 더 많아 보인다면, 그것은 남녀공학보다 여학교에서 여성들끼리의 친밀한 관계가 조금 더 쉽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또 여성들 간의 교제가 남녀공학보단 안전한 면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레즈비언 관계가 여학교에서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자가 별로 없어서, 좋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동성인 사람을 사랑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순 없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이고, 상대의 성별과 무관하게 소중한 감정이 될 수 있지요.

'여자끼리 있어서 레즈비언이 된다'는 추측은 동성애자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길면 동성애자다 라든지, 남자 형제가 많으면 게이가 된다 등 동성애자가 되는 원인을 밝혀려고 하는 터무니없는 시도들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한 시도들은 동성애를 잘못된 것, 비정상인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아무도 남녀공학 또는 여학교에 왜 이성애자가 그렇게 많은지는 묻지 않지요.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을 이성애자에 그대로 대입해 역으로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처럼 말입니다. 이성애자들은 받지 않는 그런 종류의 질문을 왜 동성애자들은 그토록 많이 받아야 하며,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까요?

레즈비언은 언제, 어디든,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대, 한 공간에만 특정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Q: 레즈비언들도 서로 사귀는 때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이렇게 나누나요? 많이들 그런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굳이 왜 동성끼리 사귀나요? 이성을 만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레즈비언들이 사귀는 관계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것을 굳이 남자 역할, 여자 역할로 나누어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에 깔린 생각들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기가 바래요.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하는 것이 남자 역할인가요? 상대방을 챙겨주기 좋아하는 것이 여자 역할인가요? 혹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남자 역할인가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수줍음을 잘 타는 것이 여자 역할인가요?

레즈비언 커플 간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성애자 커플 중에도 관계를 이끌어가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챙겨주기 좋아하는 남성도 많이 있잖아요. 남자 역할, 여자 역할에 대한 규정은 이성

애중심의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고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남성다움/여성다움이라는 성 역할 이데올로기는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레즈비언 커플 간의 관계에서, 성 역할이 구분된 경우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특히 1970년대 레즈비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다 보면, 레즈비언들 사이에서도 남자 역할, 여자 역할과 같은 구분이나 규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엔 우리 사회에 레즈비언 역할 모델이 전혀 없었고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이었죠.

그런 사회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여 교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여성을 좋아하려면 자신이 남성이 되거나, 상대방이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레즈비언 커플 관계에서도 이성애자들의 커플 관계처럼 남성적, 여성적인 역할 구분이 존재했던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당시 레즈비언 커플 관계가 이성애자들의 커플 관계와 같았다거나, 굳이 동성애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 커플 관계가 이성애 커플 관계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도, 굳이 그 사람들이 동성과 사귀었던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레즈비언 권리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십여 년이 지났고, 온라인, 오프라인 레즈비언 커뮤니티 수도 급속도로 증가한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이나 삶의 변화와 더불어 레즈비언 커플의 관계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레즈비언 커플 간에 굳이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하는 구분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랑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됐죠. 그런 식의 역할 구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성 역할 구분이 존재했던 시절이나, 그렇지 않게 된 지금이나, 여성과 여

성의 교제가 바로 레즈비언 커플 관계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성을 만나는 것과는 다르지요. 무엇보다, 레즈비언 정체성과 교제 관계, 커플 관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질수록 좋겠지요. 차별적인 사회가 만들어 놓은 획일적인 인간관계, 삶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관계의 모델과 삶의 방식을 찾고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또한 남성 역할, 여성 역할과 같은 이분법적인 분리는 동성에 관계뿐 아니라 이성애 관계 속에서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성애 커플 사이에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저래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정, 얼마나 답답하고 우스꽝스러운가요? 개인의 자율권과, 커플간의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전근대적인 규정이랍니다.

Q: 동성애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탈출한다는 것은 나쁜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동성애는 질병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요. 잘못이라면 오히려, 이성애만이 옳으며 동성애는 비정상이다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성애중심적인 자신의 사고방식으로부터 탈출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성애중심적 사고방식은 그 자체가 타인의 존재와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니까요.

동성애는 잘못된 것도, 질병도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성애로부터 탈출해 동성애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로부

터 탈출해 이성애자가 되는 그런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이성애로부터 탈출해 동성애자가 되는 방법을 알 수 없듯 말이지요.

Q: 동성애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이성애가 정상인 건 맞지 않나요?

A: 진심으로 동성애자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믿기 어렵습니다. 이성애가 '정상'

이라는 생각 자체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성애자의 인권이 존중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 사회가 이성애만을 옳고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데 있죠.

동성애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성애나 동성애나 이상할 것도 없고 우열을 가릴 것도 없는 사랑이자 사람의 성 정체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성애자 정상이라고 믿고 있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세요.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그런 이분법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의심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가 이성애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성애만을 정상이라고 간주하고 동성애를 억압해왔기 때문이랍니다. 왜 이성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삶만이 정상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비정상이 되어버려야 하는지, 그것이 옳은지 질문을 던져보셔야 해요.

동성애자뿐 아니라, 어떤 상대와도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성관계를 갖지 않는 성직자들, 동성 혹은 이성친구들과 공동체를 꾸려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이나 정착지를 가지지 않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개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형적인 이성애자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비정상인가요?

동성애자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성애만이 옳고 동성애는 그르다는 편견부터 버리고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시길 권합니다.

Q: 이성애주의가 왜 문제인가요?

A: 먼저, 이성애와 이성애주의는 다르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이성애주의란 오로지 이성애만이 정상적인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성애자라고 해서 모두 이성애주의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성애 자체를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주의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성애주의가 문제인 이유는 이성애주의는 이성애만이 정상이고 옳은 것이라고 보고, 동성애를 그릇된 것,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동성애자를 억압하고 차별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모든 이들에게 이성애적인 질서를 강요하며 사람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기 때문이에요. 이성애적 질서란, 이성애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인연을 맺고, 혼인 제도로써 이를 공고화하며, 그 안에서 출산과 양육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가부장

적 가족체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애주의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 분리를 강화시킵니다.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을 나누고, 여성과 남성 간 위계를 만들지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성애주의가 낭만적인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에게 의존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혼인을 통해 남성에게 종속시킨다고 비판합니다. 또 동성간의 사랑이나 친밀감, 유대관계를 배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지요.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신비화, 혼인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결합,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출산과 양육 등은 보편적인 삶의 형태라고 생각되곤 하지만, 사실은 어느 시대나 같은 방식으로 존재해왔던 것이 아니지요. 현재와 같은 결혼과 가족제도는 서구 근대에 이르러 등장한 것입니다. 이성과 사랑을 하고, 특정한 나이 대에 결혼을 하며, 결혼한 관계에서만 출산을 하고, 부부가 양육을 담당하는 가족제도가 인간의 절대적인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성애주의는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이성애주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성애만이 아름답고 정당하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믿음은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 의해 널리 퍼지고 있죠.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들은 낭만적인 이성애에 감동을 받고 매료 당합니다. 이성과의 사랑이야말로 개인을 행복하게 하며, 법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사랑의 완벽한 결실을 맺는 거라고 믿지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성과 사랑하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으면 삶이 불행해지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매료되는 감정은, 그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소중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제기간이 길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교제라거나, 상대와 합법적으로 가족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그 관계가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교제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하며 만족

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삶이란, 사람에 따라서 연인 혹은 배우자와의 사랑뿐 아니라 다른 여러 요소와 조건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대부분 이성애자들은 자신이 이성애자라는 점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타인의 사랑 없이도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 세상은 이성애만이 옳고 절대적이라고 가르쳐왔으니까요. 동성애자뿐 아니라 이성애자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성애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시켜 나아갈 계기를 빼앗습니다. 이성애주의는 자신을 탐색할 기회, 동성과 이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대감과 친밀한 관계의 경험을 자신 안에서 의미 있게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해물을 넘어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방식의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태도를 가지고 내린 결정과 선택은 반드시 존중 받아야 하고요.

이성애주의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고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모두를 통제하면서 힘들게 하죠. 특히 동성애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이성애주의를 깨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Q: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기독교도라면 동성애자가 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A: 기독교도라면 동성애자가 될 수 없다고요?

기독교를 믿는 동성애자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중엔 교회에서 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활동하지는 않지만 평소 마음 깊숙이 기도를 올리며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기독교와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려면, 먼저 이렇게 생각해보았으면 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말이지요. 세상에서 고통 받는 자 다 내게로 오라던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해 주어진 말씀인지에 대해서도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성애자가 아닌 동성애자란 이유로 특정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억압해선 안되지요.

신이 성서를 통해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이야기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선 안 되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의 말씀을 왜곡해서 동성애자를 박해해왔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언어를 담고 있는 만큼, 언제나 새롭게 읽히고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글귀죠. 성서는 다양한 버전과 해석이 존재하며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쓰여져 왔고, 지금까지도 새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성서 구절들이 옛날 옛적의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오늘날에도 널리 읽히

는 경전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거예요. 성서에는 여성차별적이거나 이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들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신이 여성을 차별하고 이민족을 차별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지요. 오히려 신 앞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기독교의 정신에 더 가까운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여, 성서 구절에 동성애를 금하는 듯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비하하거나 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투영해서 성서 구절을 해석해낸 건 아닐까 의심해보아야 하고요. 동성애를 금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손님 환대의 법칙'을 어긴 것이지 동성애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상세히 알려주는 책들도 나와있는데 그 중 다니엘 헬미니악의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라고, 해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권하고 싶네요. 사회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가장 먼저 올바른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에서 주위 들은 이야기 들은 편견과 혐오를 재생산할 뿐이니까요.

기독교를 믿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종교인들의 '호모포비아' (동성애혐오증)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신앙이 배치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자살기도를 하는 이도 있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며, 불행을 감수해가며 억지로 이성애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슬프고 잔인한 현실이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동성애자들도 많고, 성직자인 동성애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동성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이들 모두 신의 사랑과 기독교의 정신과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동성애자들

위한 교회도 존재하지요. 우리 사회도 기독교와 동성애를 둘러싼 많은 오해를 적극적으로 깨나가고,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 사이에서 번민하는 일도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Q: 동성애자들은 왜 권리만 주장하나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말이지요.

A: 동성애자전 이성애자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 받고 살아야 하죠. 동성애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 속엔 동성애자에 대한 여러 편견이 담겨 있을 거예요.

가령, 동성애자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낙오자라고 생각하거나, 정신병자라고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지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곳곳에 존재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삶을 영위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동성애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의무는 아니라는

점부터 알아야 할 것 같군요.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이들이 많고, 결혼 유무를 떠나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이들도 많죠. 그러나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것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지만, 타인이나 사회나 국가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오히려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살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혼인 제도 밖에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할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죠. 또한 아이를 입양하여 키울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권리만 주장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동성애자 권리운동은 우리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 단지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무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사회에서 차별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당해선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성애자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존중 받지 못한 채 무시당해온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권리운동이 주장하는 동성애자의 권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차별받지 않고 삶을 긍정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바로 그것입니다.

Q: 동성애자들은 가족을 붕괴시키고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람들이라면서요?

A: 제도든 질서든 모두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도와 법과 같은 것을 저 위의 높은 사람들이 결정짓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정불변의 것들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 각각의 의견을 반영하게 할 권리가 모두에게 있는데 말이지요.

지금의 가족제도는 오로지 혈연중심의, 혼인이라는 법적 계약을 중심으로 맺어진 이성애자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 또는 '건강가족' 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니까요.

부모 양친이 없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차별을 받는 아이들,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싶어도 동성 간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자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혼 혹은 사별을 통해 한부모가 된 사람들,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독신자들 모두 불합리한 가족제도로 인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지요.

때문에 동성애자 권리운동 진영뿐 아니라 여성운동, 인권운동 진영에서 가족제도의 차별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비롯해서 '정상가족' 중심의 현 가족제도로부터 비껴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가족을 붕괴시키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

히려 현 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가족제도를 비롯해 사회의 많은 제도들이 사회구성원의 평등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겠지요.

Q: 동성애자들은 다 에이즈에 걸리나요?

A: AIDS(후천성면역결핍증)는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질병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AIDS에 대해 공포심은 강한 반면, 제대로 된 지식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요. 그러나 AIDS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AIDS에 대한 생각이 상당부분 거짓이었거나 쓸데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AIDS는 감염인의 체액(정액, 질 분비물, 혈액, 모유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경우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기나 음식으로는 전염되지 않고요.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HIV감염인과 콘돔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감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HIV감염인은 이성애자일 수도 있고 동성애자일 수도 있으며, 어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으며,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AIDS라는 질병이 발견되기 시작했을 즈음, 당시 정부의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 AIDS를 동성애자와 연관시켰다고 하지요. 아직도 동성애자들이 AIDS의 주범이라는 식의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동성애자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과, 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AIDS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HIV감염인을 더욱 고

통스럽게 할 뿐 아니라 AIDS를 제대로 예방할 수 없게 되죠.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AIDS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동성애자만 HIV에 감염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은 결코 HIV에 감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위험한 일입니다.

AIDS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HIV감염인의 체액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지요. AIDS는 다른 전염병에 비해 전염성이 약한 편이며, 사람에 따라선 암과 같은 질병에 비해 오히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젠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다'는 말도 거짓임이 밝혀졌지요.

또한 HIV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습니다. HIV감염인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정기기를 공유하거나 사무실을 함께 쓰는 것, 욕실을 함께 사용하거나 전화기를 같이 사용하는 것,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볼에 키스하는 것, 악수하는 것도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HIV감염인을 멀리 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또한 HIV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IDS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예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HIV 감염과 동성애를 연결시키는 생각은 편견이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아이샵 <http://www.ishap.org>
 한국에이즈퇴치연맹 <http://www.ishap.org>
 대한에이즈예방협회 <http://www.aids.or.kr>
 구야홈닷컴 <http://gooyahome.com>

Q: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해 알게 되면 동성애자가 아닌 청소년들까지 물들이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A: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성애는 나쁜 것이니까, 10대들이 배워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10대 때에도 인간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들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 무시해버리는 태도는 좋지 않지요.

동성애는 이상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이끌림이죠. 동성애자는 이상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매체를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성애적인 질서를 습득해나갑니다. 이성애만을 배우죠.

동성애는 쉬쉬해야 할 화제도 아니며, 검열이 필요한 소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 왜곡되지 않은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지요. 당연히 10대들 역시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아정체성을 한창 확립해 가는 시절에는 더더구나 동성애, 이성애와 같

은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배워 알 수 있어야 하죠. 이것은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10대들도 동성애에 대한 각종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10대들이 동성애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하나에 대해 노심초사 할 일이 아닙니다.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10대들이 너무나 정보가 없어서 당혹스러워 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이성애자인 10대들을 위해서도 성 정체성 교육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이성애자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경험과 종합적인 정체성 고민을 통해 이성애자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야 하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10대들 당사자입니다. 10대의 성 정체성에 대해 당사자들만큼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탐색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정보는 동성애 자체만이 아니라, 성 정체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인권의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요.

FAQ

V. 트랜스젠더 관련 상담

Q: 트랜스젠더란 누구인가요?

A: 트랜스젠더(transgender)란 신체적인 성별과 정신적, 사회적인 성별이 정반대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로는 연예인 하리수씨가 있겠지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자신을 남성이라고 생각하거나(FtoM: female to male),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MtoF: male to female)입니다.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이 되고 싶어 한다거나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남성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타고난 신체적 성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어찌할 수 없이 자신의 내면의 성별은 신체적인 성별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통해 자신의 본래의 성별에 부합하는 신체를 갖추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트랜스젠더가 다 성확정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확정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를 트랜스섹슈얼이라고 구분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본인이 타고난 신체적인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사회는 이러 저러한 원인설과 정신질환을 들먹이며 공격하곤 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조건이 고정 불변한 것이거나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분명한 것은 트랜스젠더들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 받아야 하는 사회 구성원임이라는 점입니다.

2006년 6월 현재, 한국 사회는 아직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적상 성별 정정의 경우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호적정정 허가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확정수술에 국가적 보험을 적용할 것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호적상 성별 변경을 용이하게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Q: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는 뭐가 다른가요?

A: 동성애자는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으로 이끌리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점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기 정체성 안으로 통합한 이들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신체적인 성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즉,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이성애자나 하는 것이 이끌림을 느끼는 '상대의 성별' 과 관련된 문제라면, 트랜스젠더는 '본인의 성별' 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트랜스젠더 중에는 동성애자도, 양성애자도, 이성애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하리수씨처럼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트랜스젠더 여성(MtoF: male to female)의 경우, 사랑하는 대상이 남성이라면 이 사람은 이성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여성(MtoF)이 여성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죠. 이 사람은 동성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를 혼동하는 이들이 많은 까닭은, 사람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때문이지요. 즉, 레즈비언은 남자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게이는 여자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이며,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외모와 성역할에 대한 그릇된 고정 관념입니다.

여자다움, 남자다움이라는 것이 따로 규격화되어 정해져 있을 필요도 없고 그에 맞춰 사람들이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 개념 속에 구속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다양한 성격만큼이나 다양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애자도 마찬가지지요.

Q: 남자 같은 여자나 여자 같은 남자가 트랜스젠더인가요?

A: 남자 같은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자

같은 남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머리가 짧고, 치마를 입지 않고, 걸음걸이가 성큼성큼. 화장을 하지 않고, 목소리가 걸걸하고, 무릎을 모아서 앉지 않으면 남자 같은 여자일까요? 반면에 목소리가 조용조용하고, 부드러운 성격에, 조심스러운 사람이 여자 같은 남자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마를 입는 것보다 바지를 입는 것이 편할 수 있지요. 여자라고 해도 말이예요. 시간을 들여 화장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편한 옷차림과 편한 걸음걸이, 편한 자세로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성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자 같지 않다, 남자 같은 여자다, 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가 요구하는 여자와 남자의 모습이 있어요.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저래야 하죠. 그 틀에서 어긋났을 때 사람들은 “여자가 왜 저래?” “저게 남자 맞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들은 편견에 근거한 것이고, 아주 어리석고 잔인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한에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육체적 성별을 거부하고 다른 성별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도 다른 성별로 보이기를 바라지요.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남성/여성이라고 간주하는 성별로 자신의 외모를 바꾸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 물지각한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닌다 거나,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닌다고 손가락질을 하지요.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누구도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라고 불리길 원치 않는답니다. 여성, 혹은 남성으로 인정 받고 싶어하지요.

길으로 드러난 차별과 폭력뿐 아니라, 사회와 사람들의 시선과 대화들도 개인을 힘들게 합니다. 인권이란 구름처럼 거창하거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예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 주는 것. 길을 걷다 “저 사람, 여자야 남자야?” 하고 소곤대지 않는 것. 넌 여자답지 않아, 남자답지 않아 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 작은 행동이 시작이고 반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Q: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트랜스젠더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사귀는 관계

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다른 성별의 사람처럼 되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동성 간의 사랑과 이성 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성별의 사람과 사랑하고 사귀고 함께 인생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동성애자 정체성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정체성으로 인정하고 긍정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TV를 켜봐도, 영화를 보아도, 주변에선 이성애자 남녀간의 사랑과 가족 얘기만 주되게 흘러나오고 있으니 ‘이성애만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형태의 사랑’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쉽게 제거되지 않지요.

그런 이유로 동성애자들 중엔 '같은 여자를 좋아하다니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여자를 좋아하는 나는 혹시 남자인 것이 아닐까?', '사회에서 말하는 트랜스젠더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고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하고 호적정정까지 하면 우리 사랑을 남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요.

남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에게 상담원이 당신은 레즈비언이지 트랜스젠더가 아니다 라고 하거나, 당신은 트랜스젠더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답니다. 다만,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가 되고 싶고,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인 것 같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자주묻는질문들(FAQ)의 “트랜스젠더”와 “레즈비언” 항목을 찾아 읽어보면서, 이제까지의 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며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셨으면 합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설명과 레즈비언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과 고민들에 어느 쪽이 가까운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님의 성 정체성을 규정지어 줄 수는 없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둘러싼 판단과 선택은 항상 본인의 몫이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로 결심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니까 성별을 바꾸어야 하나 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모습이 나의 가장 솔직하고 편한 모습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세요.

Q: 여자인 제 몸이 너무 싫어요. 가슴도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생리하는 것도 불쾌해서 자궁을 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트랜스젠더가 아닌가 싶은데요.

A: 보통 트랜스젠더를 규정짓는 기준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신체에 대한 거부감과, 다른 성별의 신체를 지니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누군가가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트랜스젠더가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생물학적인 신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다른 성별의 신체를 욕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님이 유방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월경을 하는 것도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분명 생물학적인 여성의 몸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님을 트랜스젠더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가슴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귀찮아 하고, 월경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괴로워한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여성의 신체를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한 탓이기도 해요. 유방을 옷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옥죄어 감추게 하고, 월경을 불결한 것으로 느끼게 하며, 월경통 등에 대한 배려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남성들의 경우, 자신의 외부성기를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도록 교육받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여성의 신체에 대해 '남성의 페니스가 없는' 결핍된 몸으로 폄하하는 물지각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답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조건이랍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긍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혐오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여성들이 모두 '내가 트랜스젠더가 아닐까' 하고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과 느낌을 수용하는 편이지요. 타고난 신체를 견딜 수 없어 하고 특히 유방이나 자궁과 같은 성기를 제거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트랜스젠더가 아닌지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이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여겨왔는지 여부일 것 같아요. 유방과 자궁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과, 자신의 성별에 대해 남성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트랜스젠더(FtoM)는 자신이 남성이 되고 싶거나 남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남성으로서 존재감을 갖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남이 사랑하는 사람의 성별이 자신과 동성인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트랜스젠더가 아닐까 고민하는 것이라면, 같은 성별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본인의 성별을 바꾸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이 누구인가에 앞서, 자신의 성별 정체감에 대해 별도로 깊은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스스로의 몸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는 것도 좋겠어요. 억지로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신의 몸을 밟게 보고 하찮게 여기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아름답고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 신체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떠나서 말이지요.

트랜스젠더든, 레즈비언이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도,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굵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사회의 편견 탓이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게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지금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큰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남이 진정으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Q: 트랜스젠더인데 성확정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성확정수술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성확정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누구나 성확정수술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마음으로 원한다 해도 모두 실제로 성확정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지요. 타고난 신체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이들 역시 상당 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확정수술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해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어느 순간 갑자기 알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성확정수술을 할 것인가의 문제도 선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트랜스젠더이며 성확정수술을 통해서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의 경우라면, 성전환수술도 여러 가지 수술과 의료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 성확정수술을 받길 원하는지, 아니면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르러 수술을 받길 원하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성확정수술이 나에게 가져다 줄 인생의 변화는 무엇인지, 그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찬찬히 생각해 볼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세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확정수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해나가며, 지지를 받거나 도움을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확정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확정수술을 이미 했거나, 하기를 원하고 있거나, 준비단계에 있는 다른 트랜스젠더들과 자기 고민을 나누어 볼 기회를 많이 가져볼수록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경험을 전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지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도 신경을 쓰시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호르몬제 투여, 피부이식, 성기성형술, 유방 및 외부성기 절제술, 기타 성형수술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호르몬 변화와 수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 삶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과 체력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변화가 크고, 그에 따라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성확정수술을 고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비용입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는 과정, 수술 과정, 그리고 수술 후 관리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의료보험 처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개인의 삶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부 역시 성확정수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참고: 트랜스젠더 김비님 홈페이지 <http://www.kimbee.net>

Q: 저는 트랜스젠더이며 호적정정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의 법제도 상 트랜스젠더 호적정정이

성문화되어 있는 바 없었지만, 그간 호적정정이 된 판례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6년 6월, 최초로 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호적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고 개명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지금까지 하급 심에서 판사에 따라 어떤 경우는 허가하고 어떤 경우는 기각하는 등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성확정수술을 거쳐 호적정정을 원하는 트랜스젠더에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은 트랜스젠더가 성확정수술을 거쳐 성기 성형까지 한 경우에만 호적 정정을 허가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모임을 비롯해 인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수술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혼인 관계 여부로 성별 변경을 제한한 것도 큰 문제지요.

현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2년 한나라당 김홍신 전 의원이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

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이번 법안은 성별 정정 요건에 있어서 외부성기 성형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호적 정정을 위해 보통 어떠한 절차를 가져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호적 정정을 하려면 충족돼야 할 요건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며, 절차도 결코 간단치 않은데요.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호적정정에 대해 문의하는 내담자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 트랜스젠더 김비씨가 운영하고 있는 김비넷(www.kimbee.net)의 한 게시물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성별정정 허가가 여러 건 이루어졌을 당시, 김비씨가 부산지방법원 고종주 판사에게 문의해서 받은 문건인데, 이를 참고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2002년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보세요.

<호적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

1.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 서류에는 호적등본(분가시에는 제적등본 추가), 주민등록등본, 초·중·고교의 생활기록부, 병적확인서, 의사작성의 진단서와 성전환수술 확인서, 성호르몬 검사서, 염색체 검사서, 성 역할등에 관한 소명자료, 성전환수술 및 성별정정에 따른 본인의 진술서, 가족들의 의견서 등이 있습니다.

2.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를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법원에 직접 신청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고 합니다.

3. 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료 7500원입니다.

4. 가까운 법원(지원 포함)의 호적담당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 참고자료: 성전환수술 이후 성별정정 신청 시 제출서류

1.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2. 주민등록표 등본
3. 초, 중, 고교의 생활기록부 등본
4. 병적확인서(MTF의 경우)
5. 의사 작성의 진단서 등
 - ① 성염색체 및 성호르몬 검사서(내과 또는 내분비계 의료인 작성)
 - ② 최소한 2년 이상 심각한 성정체성장으로 고통받은 성전환증 환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2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 작성)
 - ③ 성전환수술 확인서(시술을 한 성형외과 또는 비뇨기과 의사 작성의 소견서)
 - ④ 상당기간 정신요법 치료 또는 호르몬 요법의 치료를 받았다는 확인서 (정신과, 내과,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의사 등 작성)
 - ⑤ 생식능력이 없고, 장래 성인식의 재전환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수술한 의사 등 작성)

6. 성 역할 등에 관한 소명자료

- ①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
- ② 성전환증으로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7. 성전환수술 및 성별정정에 관한 본인 진술서(다음 사정의 기재와 이에 관한 소명자료 첨부)

- ① 출생 이후 성전환수술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의 성 의식의 변천과정
- ② 가족관계와 성장기의 사정

- ③ 학업 및 취업 과정과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
- ④ 성전환수술을 받게 된 동기
- ⑤ 앞으로 지향하는 성 역할 및 삶의 목표

8. 성별정정에 관한 부모 형제 등 가족들의 의견서

9. 개명을 원할 경우 종전 이름이 부적합하고 새 이름이 필요한 사정과 이유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지요? 그러나 2006년 현재는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준비과정이나 챙겨야 할 문서들이 간소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밝힌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미혼에 무자녀일 것, "성전환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 받아온 사람으로서 반대 성별에 귀속감을 느껴왔을 것,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 또는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신체 외부 모습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이전의 성별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탈법 행위에 이용할 의도가 없을 것,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경우 병역의무를 다했거나 면제 받았을 것,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등입니다.

성별 변경과 호적 정정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확고하게 하며, 원하는 성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요. 내가 왜 성별 변경을 원하는지, 스스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호적 정정 이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부딪치게 될 어려움들은 어떻게 헤쳐 나갈지 충분히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고민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과 많은 정보를 교류하기 바랍니다

다. 성별 변경과 호적 정정에 관해서는 상담소보다 트랜스젠더 당사자 모임이 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현재 성문화된 법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및 호적 정정의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공동연대의 연대단체 중 하나인 성전환자인권연대(준) '지렁이'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지렁이'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kdlpsmc>) 안에서 논의를 함께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정보를 원하는 분들은 문을 두드려 보시길 권합니다. 트랜스젠더 김비씨의 홈페이지(<http://www.kimbee.net>)에 방문하여 메일이나 게시물을 통해 문의를 하셔도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호적정정을 비롯해, 앞으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조치들이 하나씩 마련되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생성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차별하는 분위기와 왜곡된 인식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는 일이겠죠.

FAQ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소개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를 전신으로 합니다. 상담소는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개개인 레즈비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레즈비언을 향한 모든 차별과 억압의 종식을 위한 활동을 고민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는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업, 레즈비언 대상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사건 지원, 자긍심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 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레즈비언 권리 운동, 레즈비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운동,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실천적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상담소는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이메일상담, 면접상담, 내방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후원계좌

국민 498101-01-114263 (예금주: 이진화)
조흥 333-04-833266 (예금주: 이진화)
우리 1002-329-844347 (예금주: 이진화)
농협 079-12-806362 (예금주: 이진화)
외환 630-004684-742 (예금주: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사무전화 (02) 703-3542 상담전화 (02) 718-3542
사무메일 lsangdam@lsangdam.org
상담메일 lsangdam@hanmail.net
홈페이지 주소 : <http://lsangdam.org>

FAQ

한국레즈비언상담소와 함께 풀어보는 59가지 궁금증
자주 묻는 질문 FAQ

발행일/ 2007년 2월 23일

지은이/ 나루 원영 유리 지현 케이

편 집/ 혜원

디자인/ 예림

표 지/ 예림

펴낸곳/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팀

<http://lsangdam.org>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전 화/ 사무 (02) 703-3542 상담 (02)718-3542

팩 스/ (02) 703-3543